“성탄 기쁨 함께 나누는 것, 부처님 가르침”

울산 백양사, 이웃종교 화합음악회
구랍 24일 이웃 종교 지도자 초청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구랍 24일 백양사 특설무대에서 이웃종교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을 초청해 이웃종교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 구랍 24일 백양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웃종교 화합음악회는 기독교의 성자인 예수님 탄신일을 불교계에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울산시민들과 음악회 참석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황룡사 어린이합창단과 YMCA 여성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날 이웃종교 화합음악회는 개막식 공식행사에 이어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럴 ‘루돌프사슴코’, 백양사 합창단의 찬불가 ‘밝은 햇살처럼’, 전체 합창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 이어 가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백양사 경내에는 대형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용품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음악회를 주최한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이라며 “우리 인간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진리인 것이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성현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안셀모 신부는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살면서 불교사찰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음악회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획기적이고 신선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이어 “서로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소중한 마음이 불교의 정신이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라며 “이 음악회가 의미 있고 많은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생각하며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도 축사를 통해 “모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자기의 종교관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자비사상이 충만하길 서원하며 앞으로도 이웃 종교간의 합창제가 활성화되어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천주교울산대구장 김영규 안셀모 신부님, 울산선교사목국장 김영훈 미카엘 신부님, 월봉사 보화스님, 해남사 혜원스님, 성불사 혜안스님, 신흥사 종현스님, 내원암 진응스님, 화봉선원 기탁스님, 여여선원 효암스님, 옥천암 문성스님, 벽선암 혜진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박창현 프란치스코 울산 평신도협의회 회장, 가수 최백호, 천주교, 교회신자 및 일반시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준공

체험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전북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 일원에 종교 관련 복합문화공간인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가 준공됐다. 전주 서고사(주지 화평)는 구랍 24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준공된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는 6999㎡ 부지에 연면적 4368㎡,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은 명상과 순례의 기능을 구비한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복합관, 목조명상체험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져, 향후 교육과 연수,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명상센터가 위치한 서고사는 후백제 견훤이 완산주(지금의 전주시)에 도읍을 정한 뒤 국운 회복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창건한 고찰로 도심과 가까운 황방산에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명소다.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는 유네스코 백제역사문화지구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국보와 보물 10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유한 금산사, 전주한옥마을 등이 인접해있고,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전북혁신도시와 법조타운과도 가까워 전북을 대표하는 한류문화관광과 다양한 명상체험, 휴양이 가능한 전통사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더불어 전주가 대한민국 종교문화 중심지이자 종교관광의 성지로 거듭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불교세계명상센터가 준공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명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전북의 종교문화자원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창립기념법회

향덕 스님 대법황 대관식도



(사)세계불교교황청이 구랍 26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법회 및 대법황 대관식을 봉행했다.

민족통일불교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기원사를 통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야대립현상과 지역갈등, 경제적 불황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처님 원력과 큰스님들의 법력으로 오탁악세를 소멸하고 자유와 평화번영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법황에 추대된 향덕 스님은 “참 성품이 심지에 감추어 있으니 요요하여 가히 얻을 수 없나니 내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으니 어찌하여서 깨달음을 마치지 아니하는가. 모두의 참 성품은 부처이고 보살인데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지 못해 범부의 삶을 살고 있다”며 “불보살의 자비행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자기 본래면목을 깨닫기 바란다”고 설했다.

사단법인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스님은 대법황에 추대된 향덕 스님에게 추대장과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요TV 전속악단 성주지회 주관으로 축하음악회가 열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종정協, 이태원 희생자 위령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 이하 종정협의회)는 구랍 16일 안성 영평사 추모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대재에는 종정협의회장 월인 대종사(대한불교승가종)를 비롯해 제25대 일붕문도회장 정림 스님(안성 영평사 주지)과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종정 스님 50여 명 및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대재는 월인 대종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어산종장 석청봉 스님과 영남범음범패, 어산종장 도연 스님과 경기범패 스님들이 함께 집전했다. 이번 위령대재를 위해 영평사 신도 20여 명이 하루 동안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도 진행했다.

월인 대종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뜻하지 않은 참사를 당하여 희생되고 말았다”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원 종단 종정 스님들은 불의의 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위령대재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위령대재 의미를 전했다.

위령대재에서는 천수바라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장충열 시인이 추모사를 낭독했으며, 고혼을 위로하는 살풀이도 펼쳐졌다. 한편, 위령대재 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종정 스님들은 영평사 부설 반야불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통영 용화사, 장학금 전달식



통영 용화사(주지 종묵)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용화사는 구랍 23일 초하루법회를 맞아 인제대학교 구본승 학생 등 5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와 불교성전을 전달했다.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은 “장학금을 처음 전달하게 된 계기는 한 독지가가 불자들에게 회향하라고 보시한 보시금을 세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신도분들도 십시일반 동참해 다섯 사람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묵 스님은 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1인당 50만 원을 인상해 각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장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자답게 큰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묵 스님은 장학금을 보시한 독지가가 평소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독지가를 위해 박수갈채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인제대학교 4학년 구본승,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학년 김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강현준, 경상국립대학교 3학년 우승민, 경운대학교 2학년 위수혁 학생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서병찬 가야명상문화원장, 용화사 신도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5차회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제5차 회의가 구랍 17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불교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주제로 전북불교 미래예측과 원탁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이명호 박사의 ‘전북불교 미래예측’에 대한 강의와 사부대중 원탁회의 정책기획단 용묵 스님의 원탁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주제 제안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명호 박사는 전북불교의 종책 방안 제안을 통해 ‘전북불교활성화방안’은 지역 불교의 구성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찰과 신도들이 참여하여 공의를 논의하는 대중공의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출 · 재가 구성원들의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없었으며 다양한 사회영역과 교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책기획단 용묵 스님은 사부대중 원탁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교구 · 문중과 지역 사부대중이 연결되는 협력체계 강화, 실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대협력 지속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 쌍봉사 등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동참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태고떡볶이 봉사단,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사)장엄, 붓다복지관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등 진안지역 사찰과 불교계 봉사단체가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축제에 동참했다.

북부마이산 상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진안군, 전북도청,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하는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축제는 구랍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진안군 불교계 봉사단체들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 홍삼찐빵 봉사단, 드림커피 봉사단, 크리스마스 산타복장 체험사진관, 진안단위농협 봉사단 등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태고홍삼떡복이 봉사단, 붓다봉사단, 크리스마스 팔찌 만들기 체험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장엄에서는 전통한지등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산타복장으로 등장해 “겨울축제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만들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많은 칭송을 받았다” 며 “보람 있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산타복장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겨울동화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홍보영상 제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구랍 21일 간담회를 통해 “광주지역 중요사찰 40여 곳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성 스님은 “광주지역 사찰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찰 홍보를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불교연합회는 1차로 원효사, 동원사, 광덕사, 법륜사, 약사암, 신광사 등 6개 사찰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유튜브 홍보영상은 3분 내외의 영상으로, 드론 항공촬영, 중요건물 영상, 사찰 전경 사진, 법회, 기도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부설기관인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진, 약사암 주지) 회원들이 각 사찰을 방문해 촬영했다.

2022년 한 해에만 32회의 출사를 통해 사찰 전경을 포함해 초파일 행사, 법회사진, 사찰의 꽃 등 사찰의 모습을 촬영했다.

총무부장 해청 스님은 “사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회원사찰의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어 SNS상의 사찰홍보를 대신하는 의미를 담는다”며, “지난 6년간 사진반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문화기획단의 첫 일반사업으로, 회원사찰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광주불교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화엄사(주지 덕문)가 구랍 25일 국보인 사사자삼층석탑을 주제로 하는 ’효(孝), 사랑 휴대폰 카메라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는 대상에 박선주의 ‘화엄사에서 빛나는 부모님’〈사진〉이, 최우수상에 이상석의 ‘3대 가족이 화엄사에서’가, 우수상에 김영란의 ‘둥이들과 함께’, 가작에는 조희경의 ‘부모님과 함께한 포근한 화엄사’가 선정됐으며, 입선 두 작품에는 이경민의 ‘코로나를 극복한 엄마와 아들’과 윤봉섭의 ‘딸아이 공직시험 합격 후’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023년 신년법회 때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동지맞이 자비나눔 행사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우리의 전통 명절 동지를 맞아 합천군 관내 4개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선물세트와 연탄 등 물품을 전달했다.

해인사는 구랍 23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봉산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어르신 810명과 가야면, 야로면 지역 초 · 중학교 학생 210여 명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 1020세트를 전달했다.

또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연탄 2000장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시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40가구에게는 케이크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신광사, 자비의 쌀 기탁



거제 신광사(주지 선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포(1000kg, 350만 원 상당)를 거제시청에 전달했다.

선안 스님은 구랍 23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어 시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선안 스님은 “거제시와 지역주민들과도 상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비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